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새해를 맞아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 공동체 시무식이 5일(수) 11시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 예배후에 임시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 2022년 공동체운영위원회 조직입니다

위 원 장 : 정태일 부위원장: 정재훈 서기: 김병우  
 생활공동체 : 장영미(교역자) 나송주(위원장) 노미현(서기)  
 예배공동체 : 정재훈(교역자) 김병우(위원장) 최연우(서기)  
 교육공동체 : 정다운(교역자) 서병욱(위원장) 한대훈(서기)  
 사역공동체 : 최기찬(교역자) 김중필(위원장) 이충환(서기)  
 선교공동체 : 권재만(교역자) 강춘자(위원장) 하경임(서기)  
 사 무 국 : 이윤희(사무장) 박태규(서기) 이현숙(회계)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정이안 ( 세례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 호

2022년 1월 2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동굴 속의 쾌락의 삶과 그 너머에 있는 빛나는 삶

지금 매트릭스 4번째 영화와 상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러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건네주는 알약 앞에 고민을 합니다. 빨간약을 먹어야 하나? 파란약을 먹어야 하나... 이 고민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고민하는 한국인과 비슷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궁금하였던 주인공은 깨어나게 되고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줄지어 늘어선 배양기구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 배터리들.

저에게 충격을 준 이 장면은 사실 자주 변용되어온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일찍이 이러한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여기 동굴 안에 사람들이 묶여있고 목도 벽만을 보도록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햇불이 타고 있는데 그 빛을 이용해 그림자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묶어두던 고정장치에서 풀려나와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동굴을 뛰쳐나와 밖의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갖 화려한 색을 가진 자연 만물들을 보며 참된 진실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마주한 후 동굴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흔들며 말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저 동굴 밖에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꾸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 즐거운 삶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으로 르네상스를 떠올립니다. 예술과 교육, 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

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더욱 발전하는 것을 막고 우리를 동굴에 가두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떠나 자신의 이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발전이 가속화 되며 인류는 모든 것을 상상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종교가 없고 질병이 없으며 돈도 없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없어지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슈퍼맨이 되어 인류를 변형시키고 넘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되어버렸고 더 비참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성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와 무너짐을 경험하였기에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이제 세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행복해졌을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독선은 더 심한 갈등과 몰이해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척, 더 관용적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 진정 사회의 통합은 유토피아 말 뜻 그대로 없는 세상,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인류는 끊임없이 책임전가를 해 왔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 남 탓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너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이다. 이러한 태도로 인간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손가락질 해 왔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마녀사냥이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나요? 역사를 천천히 복기해 보시면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 한주간의 말씀

“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성경 : 누가복음 21장

제목 :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라.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53 440 330 364

####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4절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

5절~9절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다>

10절~28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29절~38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다>

#### 2. 내용의 의미(Why)

예수님께서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참된 신앙인의 본으로써 알려주셨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과 어려움이 닥치는 중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몹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견디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 3. 의미의 적용(How)

- ①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자.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자.
- ② 인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 ③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고, 깨어있기를 힘쓰자.

## 제 2의 생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은 진시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25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을 사소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례가 저에겐 갑작스럽고 굉장히 큰 일로 생각되어 처음에는 고민하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의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서일기는 쓰면서 정작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깜박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여기 사랑방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닌 지 어느새 11년이 되어가는데요.. 11년을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 추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되어 의미 있고 기뻐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례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랑 서로 제 2의 생일이라고 축하해주었는데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민수기 6 : 24-26  
10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 : 1-2

55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정태일목사

마태복음 28 : 5-17  
552

설교자  
사랑방

###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38

516(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박태규 전향옥 / 봉헌위원 : 전향옥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 공동기도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한 해 동안 하늘나라의 삶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아멘.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갈릴리로 가라. 그를 만나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뵈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7>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10> 열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16-17>

예루살렘의 삶, 갈릴리의 삶.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 슬픔에 잠겨야 했던 고통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약속하신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선교활동 중심지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단순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고난과 죽음의 삶에서 탈출하여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삶에서 갈릴리의 삶으로. 새해에는 영생의 삶을 채우는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먼저 나와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좋은 사람들을 잔뜩 안고, 좋은 관계와 좋은 인연을 가득 품에 안고 떠나려 합니다.**

졸업여행. 제가 이 여행을 가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도, 도착하고 나서도 졸업여행을 했다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즐거운 학년별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가족만큼이나 편해진 친구들과 갔던 여행은 즐거웠고, 순간순간들이 넘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차에서 보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고, 늘 먹는 평범한 치킨도 엄청나게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루지를 엄청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케이볼카도 딱히 좋아하지 않고, 바다도 방학 때마다 늘 가는 부산 바다였는데 뭐가 그리도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여행을 하는 동안, 그리고 여행이 끝난 지금도 멧쟁이에서 6년을 보냈다는 게, 이제 곧 졸업이라는 게 믿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겠는 건, 멧쟁이에서 저는 같이 있기만 해도 넘치도록 행복한 친구들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깔깔대며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저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고, 2주 만에 저는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오니 귀여운 1, 2학년 후배들이 보고 싶었다며 안기고, 또 다른 후배들은 여행은 어땠냐고, 나 없어서 재미없지 않았냐고 장난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웃으며 동생들을 끌어안고, 또 장난치면서 저는 제 6년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넘치도록 행복한 친구들, 잠깐 없었을 뿐인데 보고 싶었다며 애교를 부리는 동생들, 제 6년은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입증된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길었고, 길었지만 짧았던 저의 6년은 이렇게 마무리 되어갑니다. 좋은 사람들을 잔뜩 안고, 좋은 관계와 좋은 인연을 가득 품에 안고 떠나려 합니다. 안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은 멧쟁이들에게 제 6년의 의미가 되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고마워!

코이노니아 25호에서 발췌. 멧쟁이학교 6학년 이애리

Q. 자신에게 있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김의인 :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김진우 : 내 행동과 말에 책임을 져야하며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모님께 많이 의지할 수 없다.

박인하 : 떨리고, 성인이라는 것을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다.

이애리 : 되게 거창할 줄 알았는데 별 거 없는? 매년 한 살 더 먹는 느낌이다.

최재원 :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기분이다. 청소년기 때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자랐다면, 20대는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Q. 멧쟁이학교에서 행복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김의인 : 1학년 테마여행이다. 선배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모든 여행 중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

김진우 : 중국에서의 1년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이다.

박인하 : 일단 멧쟁이들과 다같이 여행가서 활동을 같이 갔을 때와 풋살 리그 했을 때이다.

이애리 : 작은 기억들이 행복하게 남는 것 같다. 방에서 애들이랑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 하는 거나 하나도 재미없는 보드게임 하면서 배가 찢어져라 웃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돌아봤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최재원 : 방에서 밤마다 서로 고민도 상담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다.

코이노니아 25호에서 발췌. 멧쟁이학교 6학년



## 우리 함께해요

송구영신 예배 후 대면으로 참석하셨던 분들과 주먹을 꼭 쥐고 “올해도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라는 말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새해지만 유독 이번 2022년의 새해가 감격스러운 것은 작년 한 해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참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를 알기에 서로를 향한 작은 인사가 이토록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단히 해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얼마나 센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도 함께이기에 해나갈 수 있고, 가끔은 너무 지쳐서 잠시 손을 놓더라도 내 자리를 메꿔주고 다시 손을 잡고 끌어주는 식구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소원하다 느껴져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큰일들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 한 공간에서 가족같이 지내면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대면대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버려준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하듯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오랜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묵묵했기 때문에 몰랐지만, 가끔은 나와 너무 달라 같이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부르심 앞에 각자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응답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선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인 사람들입니다. 이 소중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욱 “함께”한다는 것에 마음을 쏟고 힘을 내기로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대들이여~~

우리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사무엘상 7장 8-20절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로나를 위한 기도>

날씨가 추워지고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서 팬데믹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태가 하루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밝은 누리를 위한 기도>

공동생활하는 식구들과 흠어져 사는 식구들 모두 어려운 중에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연말을 맞아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방학을 맞은 공동체 학교가 학기 마무리를 잘 하고, 충분히 잘 쉬는 기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육신이 약하고 치료를 받는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맹추위가 위세를 떨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들이 며칠 지내며 무림리의 겨울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공동체 종무식으로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연말로 어린이학교에서 많이 애써 주셨던 조익 선생님이 개인과 가정의 형편 때문에 사랑방을 떠나게 되어, 정리하며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종무식부터 일주일간 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송구영신예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 되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손을 닦는 결례와 허리에 띠를 동이는 순서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이들이 더욱 밝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